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에 나타난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

박근현*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Design Strategies of Large Park in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Park, Keun-Hyun* · Pae, Jeong-Han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competitions for large parks are increasing rapidly across the world, theoretical research and critiques of these competitions are as yet insufficient.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a representative competition for large park design, can be a significant resource for examining the contemporary design strategies that go into the design of a large park. In this study, the authors make a framework for analysis by looking at the competition’s design guidelines and literatures on ‘large parks’, and by then analyzing the ten finalists. Four questions that were derived from the framework were: ‘what are the approaches to large parks?’, ‘what is the process of design?’, ‘what is the sustainability of the park?’, and ‘what are the relations between city and park?’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sign concepts for large parks are primarily site-specific.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ensuring the identity of the large park. Second, it is difficult to find design proposals which satisfy the four main questions sufficiently, and works submitted tend to be visual-oriented, form-oriented, and results-centered. Third, the notion of ‘sustainability’ in large parks is a comprehensive one which includes various aspects such as ecology, finance, programming, and community. However, the notion remains ambiguous, and plan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are not concretely proposed. Finally, design proposals for large parks accompany positive relations with the city. Especially, ‘productive parks’ and ‘city self-sufficiency’ are very important demands in regards to large parks.

Key Words: Design Approaches, Design Process, Sustainability, Self-Sufficiency

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대형 공원 설계공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비판적 연구는 드물다. 대표적인

Corresponding author: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7, Email: jhannpae@snu.ac.kr

대형 공원 설계공모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는 동시대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을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재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의 지침서 및 ‘대형 공원’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개의 결선작을 분석하였다. 분석틀로 도출된 네 가지 질문은 대형 공원에 대한 접근 방식, 프로세스 설계, 공원의 지속가능성, 도시와의 관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공원의 설계 개념은 주로 대상지 내부의 특성에서 나온다. 특히 공원의 정체성 확보가 대형 공원에서는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네 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시킨 설계안은 찾기 어려웠으며, 여전히 시각적, 형태중심적, 결과중심적 설계가 많았다. 셋째, 대형 공원의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측면, 재정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 커뮤니티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그 개념이 아직 모호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넷째, 대형 공원은 도시와의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생산하는 공원’과 ‘도시의 자급자족성 확보’는 대형 공원에 요청되는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주제어: 설계 접근 방식, 프로세스 설계, 지속가능성, 자급자족성

I. 서론

도시와 공원은 대립 관계이기도, 상하 관계이기도, 때로는 공존 관계이기도 하다. 특히 공원의 규모가 클수록 공원과 도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대립이나 상하 관계 이상이 요구된다. 동 시대 조경설계의 대상지로 대형 공원(large park)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할 만한 공모전으로 단연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이하 ‘행복도시 공원공모’라 한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5개국 92팀이 작품을 제출하여 경쟁한 행복도시 공원공모는 대형 공원 설계의 쟁점과 현재 수준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내시경이라 할만하다.

2단계로 진행된 이 공모전은 2007년 8월 수상작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공원공모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후속 논의를 초대한다. 광대한 면적을 지닌 대형 공원이라는 점, 공원이 도시를 조절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도시 구조적 특징, 그리고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국제설계공모라는 점(배정환, 2008)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 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행복도시 공원공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비평적 쟁점의 생산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진행 과정 및 설계지침과 결선작들을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형 공원의 설계 좌표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원 설계공모를 분석한 연구는 그간 다수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Baljon(1992)은 라빌레뜨공원(Parc la Villette) 국제 설계경기 출품작을 그래픽 구성, 레이아웃과 공간적 응집력, 설계 전략, 설계 양식, 그리고 분석 기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틀은 국내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김수연(2000)의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공모안 분석 연구와 위재송(2001)의 한국 현대 공원 설계 경향

연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김영대(1995)는 ‘설계 분해’의 개념을 적용한 이 분석 방법이 너무 포괄적이며 하나의 분석틀로 다양한 설계공모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설계공모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마다 각기 다른 설계 지침서, 예산 및 법규의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맥락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모만의 이슈와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 예로는 브리지 파크 국제 설계경기를 분석한 김이연(2005),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분석한 배정환(2002), 서울 숲 조성 설계공모를 분석한 이상민과 조정송(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을 다룬 설계공모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복도시 공원공모를 대상으로 대형 공원의 설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개요를 살펴보고 설계지침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설계지침에서 요구하는 대형 공원에 대한 설계방향이 도출될 것이다. 두 번째는 2단계 결선에 오른 10개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첫 번째의 분석 결과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분석틀에 따라 10개 작품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분석의 주된 자료는 2단계 설계지침서, 2단계 심사에 오른 10개 결선작의 설계설명서 및 도판, 그리고 관련 기사 등이다.

II. 설계지침 분석

1. 설계공모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은 도시 중앙부에 위치한 거점 오픈 스페이스이며,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물론 경관과 환경의 중추가 되는 핵심 지역이다. 충남 연기군 장남평야 일대

및 금강 일부를 포함하는 6,982km²의 광대한 땅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시 공원공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 공동 주최하였으며, 한국조경학회가 운영과 진행을 담당하였다¹⁾. 이 설계공모는 2007년 2월 28일 공고되어 8월 28일 당선작이 발표되는 6개월간의 긴 과정을 거쳤다. 대형 공원의 설계, 연구, 심사에 경험이 풍부한 조경, 건축, 도시,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모 개시 이전에 공고되었다²⁾.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2단계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2단계 설계경기는 출품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1단계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작품들의 발전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5개국 178팀이 참가 등록을 했고, 2007년 5월 14일의 1단계 설계공모 마감일까지 국내 52작품과 국외 40작품, 총 92작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2단계 공모에 진출할 10개의 결선작이 가려졌다(표 1 참조). 2007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단계 심사에서 1등 당선작

으로 노선주의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s”, 2등작으로 김종규의 “Long Views”, 3등작으로 민현준의 “Carved Park”이 선정되었다³⁾.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또 다른 특징은 체계적인 설계지침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미 공모 1년 여 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설계 기본 방향 및 국제 현상공모 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되어 설계경기의 절차, 규정, 운영 방안 등이 섬세하게 검토되었고, 각종 설계 공모 방식 및 지침에 대한 심도 있는 사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설계지침 작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의견 수렴 과정도 대중적 관심을 모으며 진행되었는데, 특히 2006년 11월 10일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700여명의 관객이 운집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⁴⁾. 또한, 설계지침 작성을 위해 예비적 설계안을 마련해 보는 실험적 과정의 일환으로 소장파 조경가와 건축가들로부터 제한된 시간 내에 개략적인 구상안을 받는 디자인 사렛(charrette)이 진행되었다⁵⁾.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2단계 결선작 목록

연번	공모안 제목	대표자(소속)	국적	비고
1	Ancient Futures	노선주(해인 조경)	한국	1등
2	Long Views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2등
3	Carved Park	민현준(홍익대학교 건축학부/光風)	한국	3등
4	1-1=1+1	유의열(신화건설팀)	한국	-
5	The Last Piece	김광배(고려대학교 건축학과)	USA	-
6	Urban Dacha	윤용원(제공건축)	한국	-
7	Nature Mosaic	James Corner(Field Opera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
8	Landscape Carpet	Alessandro Carmine Console(5NOVE architettura)	Italy	-
9	Arable Kitchen Garden Park	CJ Kim(STUDIO 8, University of Bartlett)	UK	-
10	10 Li Park	Diana Balmori(Balmori Associates, Inc.)	US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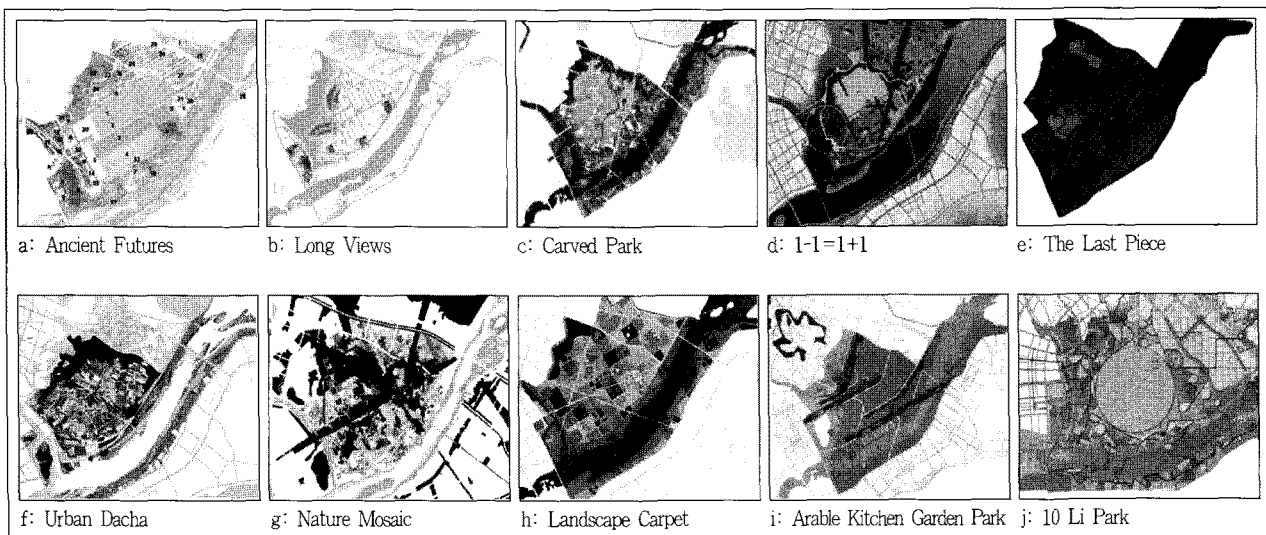


그림 1. 2단계 결선작 평면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장기 릴레이 토론이 전개되기도 했으며⁶⁾, 국민 참여 인터넷 폴을 통해 공원의 성격과 활동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설문과 제안을 받기도 했다⁷⁾. 이처럼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설계지침서는 공모 참가자가 고려해야 할 설계의 기본 방향과 지향 좌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 2007).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기로 한다.

2. 설계지침 분석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2단계 설계지침에는 '설계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설계 원칙은 크게 중앙녹지공간의 성격, 상위계획에서 규정된 중앙녹지공간의 역할, 그리고 중앙녹지공간의 설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설계 원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설계 요구사항은 공간 및 시설, 경관, 지형 및 하천, 대상지 주변 지역과의 연결 및 내부 연계,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략 공사비, 단계별 조성 계획, 그 외 필수 검토 사항으로 구분된다.

설계지침은 그 공간을 만들고 쓸 사람을 대신하여 미리 이용하고 경험하며 평가해 본 결과이다. 그러므로 설계지침은 곧 텍스트로 쓰는 조경설계이자 실천적인 조경비평이라 할 수 있다. 행복도시 공원공모는 체계적인 설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간의 국내 조경 설계경기와 구별된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의 공모전 설계지침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위재송(2001)은 10여 년간의 공원현상설계지침서를 분석하여 그 목표와 과제를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 '역사와 전통의 구현', '이용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공간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기념성/상징성의 실현' 등 크게 다섯 가

지로 분류한 바 있다. 90년대 초반의 설계지침에서는 단순히 개념적 의미에 그쳤던 '친환경적 환경 조성'이 90년대 후반부터 자연 소재, 신공법의 이용, 기존 시설의 재활용 등 구체적 과제 의 제시로 변해왔다(위재송, 2001). 하지만 이러한 지침들은 개별 요소 중심의 접근이어서 광역 환경 개선이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행복도시 공원공모 설계지침은 주변 환경 및 도시 조직, 그리고 경관과의 연계,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적 운영, 더 나아가 생성적인 공원 설계를 요구하여, 생태적 측면에서 광역적·국지적 접근 모두를 아우르는 설계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설계지침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계별 조성 계획'에 대한 상세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최근 공원 설계에 있어서 공원 조성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 설계지침은 이미 시기가 계획된 도시 조성 단계에 맞추어 공원 조성의 단계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보지 및 저밀도 지역에 대한 임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시간별·계절별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 설계를 요구한다. 향후 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양묘장 도입과 절·성토량 외부 반입의 최소화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공원 조성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침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이 본 설계지침에서는 더욱 강조되었다. 공원 내·외부 동선 체계에 대한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 차원에서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III. 결선작 분석

1. 분석틀의 설정

10개의 결선작에 나타나는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설계지침의 고려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설계지침이 비중을 두고 강조한 점은 자연과 문화를 생성하는 공원, 과정 중심적 설계,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설계, 도시 속 공원의 비전 또는 한국적 향토 경관의 제시, 그리고 지속적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과 많은 부분 맥을 같이 하는(Waldheim, 2007) 설계지침의 이러한 특징들은 중앙녹지공간의 성격(도시의 물리적 기반, 경관과 환경의 중추), 도시적 역할과 미래상(성장과 진화의 바탕, 소통과 생성의 작용을 통해 도시와 대화, 자연 생성소, 문화 발전소,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공간), 그리고 설계 방법과 접근 방식(열린 접근과 과정 중심적 설계) 등

표 2. 2단계 설계지침서: 설계 원칙의 주요 내용

구분	설계 원칙의 주요 내용
중앙녹지공간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계성과 탈중심성을 구현하는 물리적 기반 · 자연 생성소이자 문화발전소 · 도시와 대화하는 역동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장소 · 열린 접근과 과정중심적 설계
상위계획에서의 중앙녹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놀이, 휴게 및 산책, 생태학습, 체육 & 레저, 주말농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기능 도입
중앙녹지공간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의 구현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 ·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설계안 제시 · 도시 속에서 공원/오픈 스페이스가 갖는 의미와 그 비전을 제시 · 장남평야, 원수봉 및 전월산, 금강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한국적 향토 경관' · 지속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표 3. 2단계 설계지침서: 설계 요구사항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요구사항 주요 내용
공간 및 시설	-	- 문화시설, 나성리 역사공원, 랜드마크 시설 및 공간 등 도입 -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적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설계 - 수목원 및 양묘장을 도입
경관	도시이미지	- 환상형 도시 구조 중앙의 대규모 공원 녹지라는 상징성 담아낼 것 -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도시', 즉 자연성, 역동성, 탈중심성 구현
	수경관 요소의 활용	- 금강 및 제천과 장남평야의 연결을 위한 경관적 연계성 향상 방안 - 인공호수를 설계할 것
	경관축조망점	(생략)
지형 및 하천	지형	- 절·성토량은 외부 반입을 최소화 - 특히 금강 제방과의 높이차, 인공호수 주변과의 높이차 등 고려
	하천 및 제방	- 수변 공간에 대한 이용을 제안 - 상수위 뿐만 아니라 홍수 및 갈수기의 수위를 고려한 계획 - 금강 및 제천 선형 변경은 최소화
대상지 주변 지역과의 연결 및 내부 연계	-	- 주변 지역의 관계 및 연결에 대한 적절한 설계 해법을 제시하여 행복도시 미래 성장에 대한 구상 - 대중교통축(BRT)과 중앙녹지공간 연계 방안 고려할 것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동선 체계 (내부를 관통하는 통과 교통 억제/금강과 장남평야를 연결하는 보행로 제안 가능/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의 연계방안/친환경 주차장 배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	- 도시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제안 - 시간별, 계절별 개념을 도입한 단계별 운영 프로그램 제안 가능 - 시공 후의 운영 및 관리 경비 조달 방안 제시할 것
개략 공사비	-	(생략)
단계별 조성 계획	-	- 행복도시는 활력단계(2007~2015년),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 완성단계(2021~2030년)의 3단계 도시 성장 시나리오를 가짐. 또한 2015년까지 15만 명, 2020년까지 30만 명, 2030년까지 50만 명이 유입될 것임. 참고하여 단계별 조성 계획 제시 - 유보지 및 저밀도 지역에 대한 임시적 활용방안을 제시
필수 검토 사항	-	-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체육·레저 등 시설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제시

에 있어서 대형 공원 설계의 지향점을 적절히 표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설계지침 자체는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을 파악하는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기존의 문헌과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형 공원의 특징, 의의, 과제 등이다. 대형 공원에서의 '크다(large)'라는 단어는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전, 혁신 등의 함의를 내포한다(Czerniak, 2007a : 26). 대형 공원이 도시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반시설 및 생태적 기능과 더불어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장소라는 점에 있다. 대형 공원은 유연하고 역동적인 대상지인 동시에 시간적으로 강력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장소이기 때문이다(Berrizbeitia, 2007: 175). 따라서 대형 공원에서 공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형 공원에서는 공원 부지 확보 및 조성, 그리고 공원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층위에서 '프로세스적 설계'가 요구된다. 과거의 정태적인 설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공원 설계에서 프로세스적 설계를 시도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이지만, 대형 공원에서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Hargreaves(2007)는 대형 공원에 있어서 생태적·시간적 프로세스를 존중하는 비종결적(open ended) 구성의 의의를 강조한다. Berrizbeitia(2007) 역시 대형 도시 공원은 그 규모와 위치, 그리고 부지의 역사 때문에 프로세스 주도적 설계 방식을 요구한다고 논한다.

대형 공원은 또한 설계, 계획, 관리 및 유지의 관점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Lister, 2007: 35). Beardsley(2007)는 대형 공원의 재정 확보 및 유지 관리가 작은 공원에 비해 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형 공원 유지 관리의 사유화는 스키이트장 등의 스포츠 클럽, 유료 놀이공간과 캠프장, 나이트클럽의 발생 등 공간의 사유화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공공 공간 자체가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배타적인 이데올로기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때문에 대형 공원이 다양한 대중의 경쟁과 투쟁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걸린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공원에 바라는 역할은 무엇이며, 공원이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오늘날 대형 공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Meyer(2007)는 경제 성장과 산업적 생산의 결과로 도래한 위험 사회(risk society)를 극복할 가능성을 대형 공원에서 찾는다. 대형 공원을 통해 환경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위험을 재구성함으로써 공원은 자연과 인간,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회적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Czerniak(2007b)이 말한 대형 공원의 특징 중 하나인 '사회적 촉매제'와 연관된다. 그녀는 오늘날 대형 공원의 역할을 '사회적 촉매제(social catalyst)', '생태적 관리자(ecological agent)', '상상의 기획(imaginative enterprise)' 등 세 가지로 보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원의 두 가지 수단으로 가독성(legibi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제시한다. 가독성은 설계의 의도와 정체성 그리고 이미지를 공원 이용자, 특히 비용 지불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며, 회복력은 생태적 복원력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목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복도시 공원공모 설계지침과 대형 공원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대형 공원의 설계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형 공원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정체성 제시, 둘째, 과정 중심적 설계, 셋째,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프로그램, 넷째, 공원과 도시의 관계이다. 설계지침에서 강조된 '한국적 향토 경관'은 일반적인 대형 공원 설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도시 공원의 비전 제시'는 대형 공원에 대한 접근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설정된 작품 분석틀은 다음의 네 가지 물음과 같다. 첫째, 대형 공원의 설계 개념 혹은 정체성(identity)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둘째, 공원 조성 및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셋째,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가?, 넷째, 공원은 무엇을 생산하고, 도시와 무엇을 주고받는가?

2. 작품 분석

1) 대형 공원에 대한 접근 방식 - 설계 개념 혹은 공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결선작 10작품에서 나타나는 설계 아이디어의 전개, 접근 방식, 그리고 대형 공원의 정체성 제시를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대체로 많은 설계안들이 대상지의 조건에서 설계 개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결선작 중 다수가 수평적으로 펼쳐진 농업 경관과 그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지를 어떻

게 해석했는가, 어떠한 조건에 중점을 두었는가 하는 점이 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결선 진출작 대다수가 "대상지와 지역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도시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고 총평했다. 또한 "몇몇 작품들은 이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농업 경관을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존하거나 재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심사위원회는 대규모 공원을 단 한 번에 건설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 공원은 도시 자체가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 계속 발전되고 변화될 것이다. 선정된 결선작의 다수는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다는 현대적인 개념을 포용하고 있다. 많은 작품들이 새로운 행정도시에 걸맞는 독특하고 수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강력한 설계적 틀을 제안했다. 이 작품들은 또한 그것의 실행과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적 유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선작들은 또한 확장된 유형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은 보다 동시대적인 형태, 활동, 의미의 언어로 사이트를 재해석하고 있다. 반면 다른 어떤 작품들은 강의 힘과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이 도시의 미래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보다 친근한 특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몇몇 작품들은 미래의 오픈스페이스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참여적 경관과 상징적 소유의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서로 다른 이 다각적 접근들을 포괄하여 다양한 층위의 결선작을 선정했다(Jury Committee, 2007)."

각 작품별로 살펴보자면, 2번(그림 1b의 Long Views), 3번(그림 1c의 Carved Park), 4번(그림 1d의 1-1=1+1), 10번(그림 1j의 10Li Park) 설계안은 현재 대상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광활한 평야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 설계의 목적을 두었다.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세 가지 안이 서로 상이한데, 특히 3번의 경우 프로그램들을 '음각된 공원' 레벨에 배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10번의 경우 한국의 거리 단위인 '리' 개념을 이용하여 광활한 원형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1번(그림 1a의 Ancient Futures)과 7번(그림 1g의 Nature Mosaic) 설계안은 이 장소를 통해 새로운 공원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번은 공원이 나아가갈 방향을 한국의 전통적 지혜(나눔과 공존)에서 찾고 있다. 반면에 7번은 다른 측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및 경관생태학을 바탕으로 21세기 공원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5번(그림 1e의 The Last Piece) 설계안의 경우 역시 대상지의 성격에 주목하였는데, 다른 설계안과 달리 행복도시 전체에서 중앙녹지공간이 갖는 역할에 주목하여 개념을 잡았다. 8번(그림 1h의 Landscape Carpet) 설계안은 현재 대상지의 경관 요소 중 네 가지 요소(산, 나무, 들판, 물)에 집중하고 이를 테마파크와 결합하여 수많은 단위 경관들을 만들어냈다. 6번(그림 1f의 Urban Dacha)과 9번(그림 1i의 Arable Kitchen

표 4. 2단계 결선작 분석 : 설계 개념 및 주요 특징

연번	작품명	설계 개념/공원의 정체성	주요 특징
1	Ancient Futures	오래된 지혜(나눔과 공존)를 실현하는 공원	다양한 논과 원예지를 통해 경작 시스템과 자급자족성에 주목
2	Long Views	현재의 Long view를 간직하는 생태적인 공원 조성	Long view를 위한 상세한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
3	Carved Park	음각된 공원을 통해 현재의 수평적 경관 보존	농업경관을 보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음각된 공원'에 배치
4	1-1=1+1	한국적 들녘 경관을 보존하면서 도시민들을 수용	보존+다양성, 한국적(토속적) 경관+도시 경관/거대한 'eco-tech ring'의 도입
5	The Last Piece	대상지를 MAC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보고,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꾀함	3가지 이동수단(운하, 차도, 보도)이 겹치지 않도록 21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설계/동물원 개념, Canal투어, 섬공원
6	Urban Dacha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Kitchen Garden(Dacha)과 Park를 결합	구체적인 도시농업 프로그램 제시/커뮤니티센터, 시민, 기술자, 행정기관 간의 상호 시스템 설계
7	Nature Mosaic	개방적이고, 성장하고, 중첩되고, 다각화된 생태적 Mosaic(또는 Network) 구성	Forest corridor, event strip, field grid, water matrix, river terrace 등을 중첩하여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성/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강조
8	Landscape Carpet	정사각형 모듈에 4가지 경관요소와 4가지 테마파크를 결합하여 수많은 단위경관(KLU)를 만들고, 이를 공원에 배치	4가지 공원-energy park, sport park, cultural park, public park/Landscape Carpet 조성에 관한 상세한 프로세스 제시
9	Arable Kitchen Garden Park	자연과 문화, 기술을 결합한 '키친가든'을 공원에 도입	키친가든과 연계되어 휴식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Lawn Pier' 구조물 설계/에너지, 자원관리 기업체-MUSCO
10	10 Li Park	한국의 거리 단위인 '리' 개념을 이용, 10리의 원형 경관과 그 접선들로 공원을 만듦	10리 링/선적 도로/환상적 자연/동적인 생태계/접선부의 발전/공원 유지 기금 6가지 테마로 공원을 설계함

Garden Park) 설계안은 시민의 참여와 공원의 '생산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키친 가든(Kitchen Garden)'이라는 요소를 주요 설계 개념으로 삼았다.

2) 과정 중심적 설계 - 공원 조성 및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은 공원이 도시를 조절하는 도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 및 공원 조성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정책적 집행이 급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프로세스적 설계의 도입이 적절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00만평에 달하는 부지의 크기 또한 프로세스를 고려한 설계를 요청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결선작들이 지향하고 있는 단계별 계획의 목적과 전략은 달랐지만 프로세스적 설계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큰 공통분모를 형성한다.

모든 설계안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를 발견할 수 있지만,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번, 5번, 8번 설계안이 비교적 상세한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를 보여준다. 특히 2번의 경우 설계 전체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8번의 경우 유일하게 예산 산출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10번의 경우 전체적인 프로세스보다는 숲의 간벌, 유보지 활용, 절·성토 프로세스 등 세부적인 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마치 유행하는 패션처럼 붐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양상의 설계적 수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프로세스 중심 설계는 “아이디어 수준의 다이어그램”과 “미래 예측의 부정확성”(이지선, 2008: 17-21)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컨대 1번과 10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생태계의 프로세스를 매우 유사한 그래픽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프로세스 기반적 설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다양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는 선언적 수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점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한 것이다.

Berrizbeitia(2007)는 프로세스 기반적 설계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material)의 동적인 특징 자체가 설계에 있어서 경관의 최종 형태보다 설계 프로세스를 요구한다. 둘째, 형태적인 설계보다는 적절한 대상지 분석을 위한 모색이 요청된다. 셋째, 역사는 단지 시각적인 참조물이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프로세스에 기반 한 작업은 처음부터 변화를 예견하는 비종결적 구성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공원공모 결선작들의 프로세스 설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분석된다. 앞의 네 가지 특징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설계안들이 네 번째의 '비종결적 특징'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것이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대상지의 성격 및 그 역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첫째에 해당하는 물질 차원에서의 상세한 프로세스보다는 거시적으로 공간 조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아이디어를 던지고 있다.

표 5. 2단계 결선작 분석: 과정중심적 설계 내용

연번	작품명	프로세스 설계의 주요 내용
1	Ancient Futures	2007년/2015년/2020년/2030년 자급자족과 공생(symbiosis)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 조직을 위한 간략한 프로세스/공간별 서식종 변화 프로세스
2	Long Views	1달/2~3달/6달/12달/15달/2년/3년/4년~ 인공호수, 언덕, 동선, 다리, 경사지, 식재, 수로, 건축 등 공원 조성에 관한 상세한 프로세스
3	Carved Park	2010년/2015년/2020년/2025년/2030년 과일, 수목, 꽃, 야채, 곡물 등의 조성 비율에 관한 프로세스/공간별 간략한 프로세스
4	1-1=1+1	2011년/2015년/2018년/2020년/2030년 공원 조성에 관한 간략한 프로세스/금강 복원 프로세스/유보지 개발 프로세스
5	The Last Piece	2008년/2012년/2015년/2020년/2030년 숲의 간벌·성장 프로세스/주요 프로그램 프로세스/유보지의 활용 및 조성 프로세스/절·성토, 도로 조성 프로세스
6	Urban Dacha	2015년/2020년/2030년 동선, 시민정원, 생태체계, 공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간략한 프로세스
7	Nature Mosaic	2007년/2015년/2030년/2050년 간략한 공원 조성 프로세스/공간별 서식처 조성 프로세스
8	Landscape Carpet	2011년/2015년/2020년/2025년/2030년~ 시설물, 기반시설, Landscape Carpet 조성에 관한 상세한 프로세스/식생 성장의 개략적 프로세스/단계별 조성 예산 산출
9	Arable Kitchen Garden Park	3년/1.5년/1.5년 간략한 공원 조성 프로세스/테라스 구조물(Pier)의 조성 프로세스
10	10 Li Park	2015년/2020년/2030년 종묘장의 성장 프로세스/공간 조성 및 공간별 프로그램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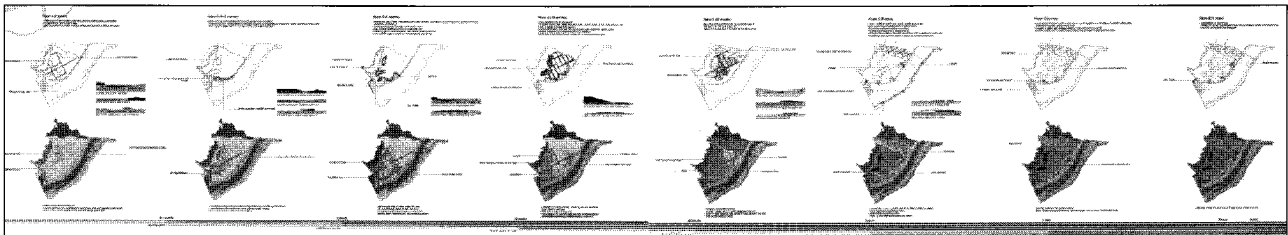


그림 2. 2번안 Long Views의 공원 조성 단계별 전략 다이어그램 일부

3) 공원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가?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는 오늘날의 공원, 특히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형 공원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형 공원들이 재정적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가 생겨나고 시민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대형 공원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행복도시 공원공모 역시 설계지침을 통해 '도시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과 '시공 후의 운영 및 관리 경비 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침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태적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넘어서서 재정적 측면과 프로그램적 측면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결선작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비교적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제시한 설계안으로 1번, 7번, 9번을 들 수 있는데, 특히 7번 설계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설계의 주요한 테마로 내세웠다. 공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묘장, 수문계획, 친환경에너지, 공동체 지원 농업, 교통 체계, 계절별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9번 설계안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관리 기업체인 MUSCO를 제안하여 재정적인 측면과 공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혐기성 분해 시스템, 냉난방 계획 등 기술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1번과 9번안은 유비쿼터스와 지역 데이터 네트워크 등 첨단 통신 기술을 활용한 공원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많은 설계안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급을 꾀하고 있다(1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에너지 자급을 위해 대부분의 결선작들은 대상지의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태양열

표 6. 2단계 결선작 분석: 지속가능성(운영 및 관리) 주요 내용

연번	작품명	운영 및 관리(지속가능성)
1	Ancient Futures	홍수주기(10/50/200년)를 고려한 제방/농업커뮤니티 시스템과 하이테크 농업/24절기별 프로그램/종묘장/습지와 수로를 이용한 수질정화 체계/논, 호수, 습지 등 빗물을 담아 80% 물 자급/바이오매스, 태양열에너지로 에너지 자급/유비쿼터스를 통한 정보제공, 커뮤니티케이션
2	Long Views	유지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공동체 운영 등/개략적인 프로그램 제시
3	Carved Park	Tree Mall- 시민의 나무 기르기/나무교육/시민덧발 임대료를 통해 공원 관리비용 충당/홍수 주기(5/10/50년)를 고려한 워터프론트 설계
4	1-1=1+1	Eco-tech ring의 조성/종묘장/장기적인 금강의 복원/바이오매스/태양열에너지
5	The Last Piece	다양한 식재의 기능(그린 코리더, 도시의 묘목 등)/유보지의 단계별 활용(대지예술, 축제, 주말농장, 스케이팅 등)→정원축제, 종묘장 등 → 주거지/숲 성장 과정 제시
6	Urban Dacha	200미터마다 커뮤니티센터/편의시설을 두어 시민정원 관리/커뮤니티센터, 시민, 기술자, 행정기관 간의 상호 시스템 제시/배수 시스템/잡초 제거를 위해 수레국화(Knapweed) 식재
7	Nature Mosaic	*'지속가능성'이 주요 개념이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함/종묘장/수문 계획(건기/습기/100년 주기 홍수기)/친환경 에너지(친환경 조명, 바이오매스)/공동체지원 농업(CSA)/3가지 큐레이터 제안(공원 개발, 공원 설계, 환경)/지하주차장, 방문자센터, 식당, 각종 문화시설, 에너지발전소 등에서 수입창출 + 공공투자 및 개발이익 투자 필요
8	Landscape Carpet	Energy Park - 바이오매스, 태양열, 식물정화호수, 풍력발전 등/물 순환 체계
9	Arable Kitchen Garden Park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디지털 농작, 조명 등/바이오매스/시기별 채배 작물 제시/지속가능한 Pier(교각) 설계 - 냉난방, 배수 계획 등/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적인 잔디밭 관리 방법 제시/Farmer's market/협기성 분해 시스템 도입/에너지, 자원 관리 기업체 - MUSCO/친환경 냉난방 시스템/물 공급 전략/지역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공원 관리
10	10 Li Park	절기별, 계절별 논 경관과 프로그램 변화/서로 연결된 습지들과 논 생태계 계획/연간 물 수급 계획/바이오매스/공원관리세금 지불 → 생태 서비스 선택 및 나무, 꽃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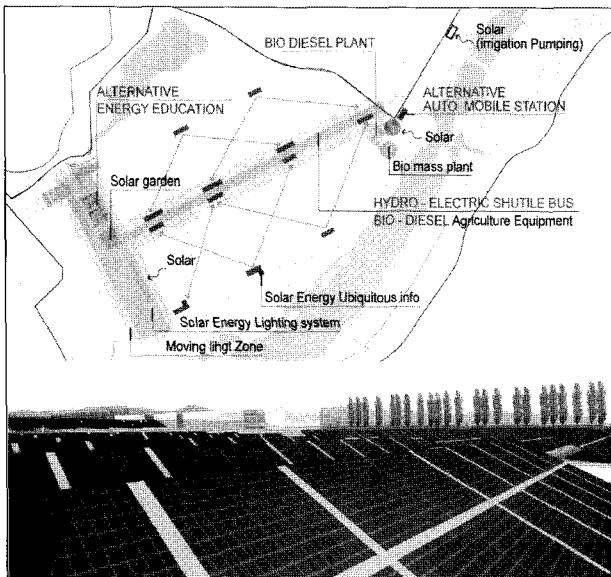


그림 3. 1번안 Ancient Future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이어그램

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제안했다. 반면에 정작 공원의 경비 조달 방안을 제시한 설계안은 다섯 작품(3번, 6번, 7번, 9번, 10번)에 그치고 있다.

- 4) 도시와의 관계 - 공원은 무엇을 생산하고, 도시와 무엇을 주고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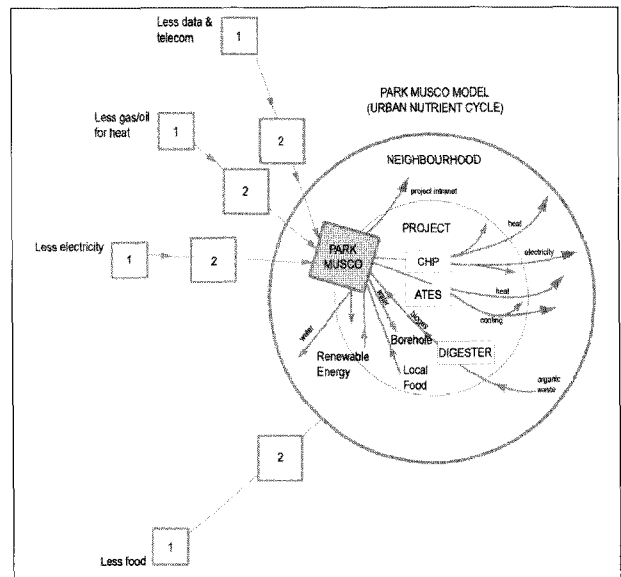


그림 4. 9번안 Arable Kitchen Garden Park의 공원 에너지 및 자원 관리 기업체 'MUSCO' 설명 다이어그램

오늘날의 도시 공원은 '섬'이 아니다. 공원은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로 작동하며, 공원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실로 다각적이고 다층적이다. 특히 대형 공원은 그 크기 면에서 도시민들의 삶과 도시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잘 짜여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공원으로서 중앙녹지공간이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도시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던져졌다. 설계지침은 '생산하는 공원(productive park)'으로서의 중앙녹지공간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생산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생산을 결선작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번과 8번을 제외한 모든 설계안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공원을 계획하였다. 또한 1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설계안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이 계획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친환경 에너지로는 주로 대상지의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태양열 에너지와 농산물 생산과 연동된 바이오매스가 제안되었으며, 8번 설계안은 앞의 두 발전 방식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및 혐기성 분해 시스템까지 제시하였다. 몇몇

설계안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친 반면, 1번과 7번 설계안의 경우, 공간 구성과 연계하여 설계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생산 이외에도 도시와 공원의 관계 맺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1번, 3번, 6번, 9번 설계안의 경우, 농산물 생산 이후의 과정, 즉 농산물 시장과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관계 맺기를 제안하였으며, 6번, 10번은 시민과 공원 그리고 행정기관 간의 상호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에서 나오는 중수와 하수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안도 있다(1번, 8번). 종합하여 볼 때,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설계안으로 1번, 3번, 4번, 6번, 7번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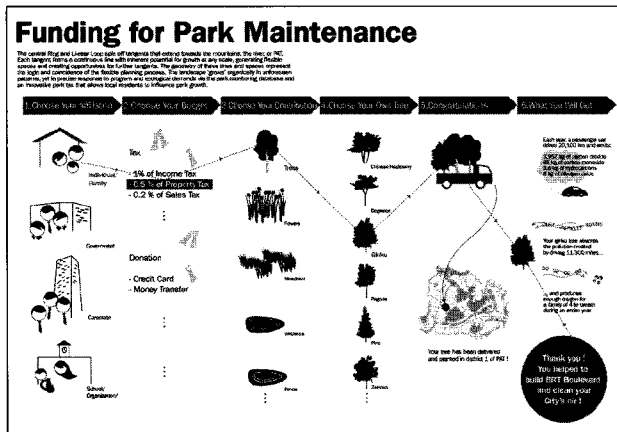


그림 5. 10번안 10 Li Park의 생태 서비스를 위한 공원 세금 프로그램 제안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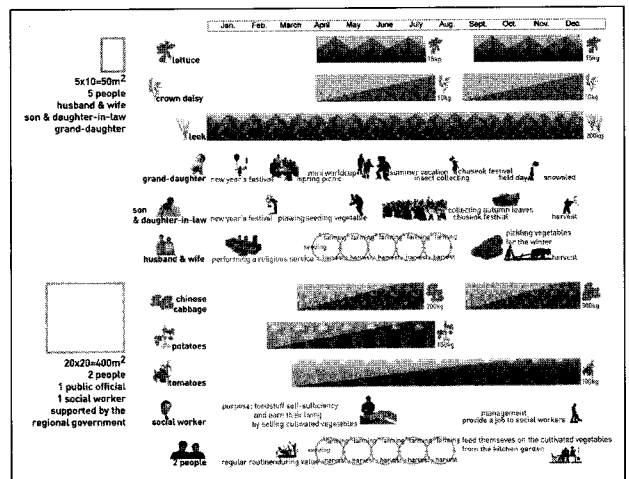


그림 6. 6번안 Urban Dacha의 다양한 경작을 통한 지역경제와 커뮤니티활성화 등의 효과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표 7. 2단계 결선작 분석: 도시와의 관계 주요 내용

연번	작품명	도시와의 관계	
		생산하는 공원	기타
1	Ancient Futures	여러 가지 논(예: 텃밭)에서의 생산, 원예/종묘장/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	습지와 수로를 이용한 도시 중수의 정화/street market을 통한 농산물 거래/경관 투어/차량 진입 차단 및 내부 순환 셔틀버스
2	Long Views	-	수많은 이용이 가능한 빈 땅의 제공/공원 관통 도로를 통해 경관 감상
3	Carved Park	논에서의 생산/시민의 나무 기르기/시민의 텃밭 기꾸기	Tree mall-시민 나무기르기, 나무교육 등/시민텃밭 임대료를 통해 공원 관리비용 충당/차량 진입 차단
4	1-1=1+1	논에서의 생산/종묘장/주말농장/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	기대한 eco-tech ring을 통해 도시-자연 연결/공원의 edge를 확장하여 선형공원화 / 차량 진입 차단 및 내부 순환 셔틀버스
5	The Last Piece	주거지 개발이전 유보지 활용(주말농장, 종묘장)	경계부 프로그램을 도시 토지이용과 연결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린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함/동물원 개념/canal 투어
6	Urban Dacha	시민정원에서 생산	도시 농업(에너지 절약, 음식의 질 향상, 지역경제와 커뮤니티활성화 등의 효과) / 커뮤니티센터, 시민, 기술자, 행정기관 간의 상호 시스템 제시
7	Nature Mosaic	종묘장/커뮤니티 지원 농업(CSA)/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	Forest Corridor, Event Strip, Water Matrix를 통한 도시와의 네트워크/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건물, 다리/차량 진입 차단, 작은 전기가 내부 순환
8	Landscape Carpet	친환경 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도시 하수의 정화-식물 정화 등
9	Arable Kitchen Garden Park	종묘장/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키친가든에서의 생산	일자리 제공/지역 식품 생산과 관련된 커뮤니티 형성
10	10 Li Park	논에서의 생산/에너지(바이오매스)/종묘장	10리 원형 내부로의 차량진입통제/생태 서비스(+나무, 꽃 제공)를 위한 공원 세금 프로그램 제시

3. 소결

이상에서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10개 결선작을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의미와 시사점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대형 공원에 대한 접근 방식

많은 설계안들이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보존하거나 재해석하여 설계의 주요 개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설계안에서는 새로운 공원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개념적으로 제시한 설계안으로는 1번과 7번을 들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공원의 개념 설정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6번과 9번은 '키친 가든'이라는 설계 요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공원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친 가든'은 대형 공원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공원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원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설계안들은 현재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는 수평적인 경관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지침서가 요구한 '한국적 향토 경관'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프로세스 설계

공원 설계에 있어서 공원 조성 프로세스는 이미 필수적인 아이템이 된 양상이다. 대형 공원일수록 조성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복도시 공원공모는 설계지침에서부터 단계별 조성 계획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안들은 다소 피상적인 공간 조성 프로세스만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예측에 대한 어려움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설계공모라는 설계방식의 특성상 조성 후 공원의 모습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관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프로세스를 강조한 설계안들이 공원 운영 및 관리나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물론 수상작들이 다른 작품들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3등 이내에 든 작품 중 두 작품이 프로세스보다는 공원 프로그램 설계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설계공모에서는 프로세스 설계가 전체 설계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과 공원의 지속가능성

앞에서 분석한 바 있듯이 1번과 7번 설계안은 설계의 개념에서부터 공원의 운영 및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키친 가든을 설계 개념으로 한 6번과 9번 설계안도 다양한 차

원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네 설계안 외에도 모든 설계안에 걸쳐 다각적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이 설계공모에서 제시된 공원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생태적 측면, 재정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 커뮤니티 측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탱시켜주는 측면을 말하며, 수질정화체계, 친환경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녹지관리방법, 친환경 냉난방시스템, 혐기성 분해 시스템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에너지 및 자원관리 기업체 MUSCO, farmer's market, 공원관리세금 지불, 시민덜밭 임대료 지불, tree mall, 주차장 및 각종 문화시설을 통한 수입 창출 등이 제안되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은 계절별, 절기별 프로그램 제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원 프로그램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으로 커뮤니티 지원 농업(CSA),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지속적 관계 구축, 상호 시스템 제시, 유비쿼터스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7번 설계안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공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모호한 수준에서 일종의 이미지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4) 도시와의 관계

각 설계안들마다 설계의 개념과 주요 프로그램에 따라 도시와의 관계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설계안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깊이 고심한 작품으로 1번, 3번, 4번, 6번, 7번을 들 수 있다. 특히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한 1번, 7번, 9번 설계안은 도시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5번 설계안의 경우 공원의 설계 개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시와의 관계를 내세웠지만, 정작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설계지침의 강조점이라는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설계안은 '생산하는 공원'을 지향했다. 제시된 생산 공원은 크게 농산물 생산(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과 에너지 생산(1번, 4번, 7번, 8번, 9번, 10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적 생산뿐 아니라 문화 생성에 대한 설계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도시를 끌어들이고 도시에 파고들고자 하는 다층적인 시도도 엿볼 수 있는데, 그 예로 도시 하수·중수의 정화(1번, 8번), 공원 경계부의 확장을 통한 선형 공원화(4번), 정부, 전문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시스템(6번, 9번), 생태 서비스 제공 및 공원 세금 프로그램(10번) 등이 있다.

IV. 결론

최근의 한국 조경은 "조경의 시대," 그 이상의 호황을 구가

하고 있다. 건강한 반성과 성숙한 사유를 경험하지 못한 위태로운 풍경은 여전하지만, 유례없는 설계경기의 풍년이 그 불안함과 위태로움을 역동적인 긴장과 기대로 치환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2007년의 행복도시 공원공모는 한국 조경에 도전과 반성의 기회를 안겨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설계공모가 한국 현대 조경 역사상 최대의 설계공모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서 조정설계의 동시대적 쟁점을 점검하고 대형 공원의 미래 좌표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수상작은 물론 결선작과 여러 출품작에 대한 정교한 논의와 치열한 비평이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행복도시 공원공모의 결선작을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가 동시대 공원 설계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공원의 설계 개념은 주로 대상지 외부가 아닌 대상지 내부의 특성에서 나오며, 그 개념은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 공원은 새로운 공원의 구현이 시도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행복도시 공원공모에서는 대형 공원의 강조점 중 하나인 공원의 정체성 제시와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가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지는 도시 정체성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 도시에서 제시하는 녹지 공간의 정체성이 사전에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행복도시 공원공모 결선작들 중 대형 공원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쟁점들-본 연구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지속가능성, 도시와의 관계-을 모두 충족한 설계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상세한 프로세스 기반적 작업을 보여준 2번(Long Views)과 8번(Landscape Carpet) 설계안은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나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제시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반면, 후자에 중점을 둔 1번(Ancient Futures)과 7번(Nature Mosaic) 설계안은 프로세스 설계의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적지 않은 결선작들에서 여전히 시각적, 형태 중심적, 결과 중심적 설계에 치중한 측면이 드러난다. 이는 동시대 조경이 생태와 디자인의 대립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오다가 정작 도시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형 공원의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측면, 재정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 커뮤니티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그 개념이 아직 모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행복도시 공원공모에서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이미지 위주의 다이어그램 차원에서 머무르거나 짧은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실제로 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는 제시되지 못했다. 당선작의 제안을 토대로 후속 설계팀과 행정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대형 공원은 과거의 정태적 공원들처럼 단순히 도시를 확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시와 관계를 맺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공원공모에서 많은 결선작들이 강조한 '생산하는 공원'은 평야라는 대상지의 현재 조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대형 공원에 대한 중요한 수요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자본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도시 자체의 자급자족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공원이 그것에 대한 가능성 있는 실현 수단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주 1. 이 공모전에서 임승빈(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주최자를 대리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을 섭외하며 심사 진행과 지원을 총괄하는 전문위원(PA: Professional Advisor)으로 활동했는데, 국내에서 개최된 조경 설계공모에서 전문위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주 2. Julia Czerniak(Syracuse University 교수, 건축/조경, 미국), Mark Francis(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교수, 조경, 미국, 심사위원장), Peter Latz(Latz+Partners 대표, 조경, 독일), Binyi Liu(Tongji University 교수, 조경, 중국), 김기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시, 한국), 김영준(yo2 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건축, 한국), 양병이(서울대학교 교수, 조경, 한국)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Paolo Bürgi (Paolo Bürgi Landscape 대표, 조경, 스위스)와 안상수(홍익대학교 교수, 디자인, 한국)가 예비심사위원을 맡았다.
- 주 3. 수상작 및 결선작 전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배정한(2008)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 주 4. "Green Heart M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Central Open Space in MAC, Korea," 2006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 미술관(MOA).
- 주 5.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설계 기본 방향 구상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 디자인 샷." 2006년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처 회의실.
- 주 6. "릴레이토론: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를 말한다!"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월간 『환경과 조경』 홈페이지 (www.landscapeworld.co.kr).
- 주 7. 국민 참여 인터넷 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국민 제안."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ilkc.co.kr)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www.macc.go.kr).

인용문헌

1. 김수연(2000) 조정설계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 여의도공원 현상설계공모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아연(2005) 브리지 파크 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정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3(5): 15-30.
3. 김영대(1995)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71-92.
4. 배정한(2002) 다운스타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본 조정설계의 새로운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29(6): 62-71.
5. 배정한(2008) 대형 공원, 생산, 프로세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조경비평 봄,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파주:

- 도서출판 조경.
6. 위재송(2001) 한국 현대공원설계 경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 공원 현상설계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7. 이상민, 조정송(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15-27.
 8. 이지선(2008) 프로세스 설계 방법을 적용한 조경설계: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공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 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설계지침서.
 10. Baljon, L.(1992) Designing Parks. Amsterdam: Architectura & Natura Press.
 11. Beardsley, J.(2007) Conflict and erosion: The contemporary public life of large parks.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99-214.
 12. Berrizbeitia, A.(2007) Re-placing process.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75-198.
 13. Czerniak, J.(2007a) Speculating on size.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9-34.
 14. Czerniak, J.(2007b) Legibility and resilience.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15-251.
 15. Hargreaves, G.(2007) Large parks: A designer's perspective.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21-174.
 16. Jury Committee(2007) Jury Report: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17. Lister, N.-M.(2007)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35-58.
 18. Meyer, E.(2007)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59-86.
 19. Waldheim, C.(2007)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 www.iklc.co.kr
 21. www.landscapeworld.co.kr
 22. www.macc.go.kr

원 고 접 수 일: 2008년 9월 12일
 심 사 일: 2008년 10월 13일(1차)
 2008년 10월 29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8년 12월 5일
 4 인 익 명 심 사 필